



## 「범접할 수 없는 완강 신화」 국어 모의고사 및 해설(5)

| 박혜선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10.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이전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신뢰하였고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하여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고 했다. 따라서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달리 케인즈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 시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되어 대공황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의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⑦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거시 계량 모형을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함에 따라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새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이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로 이 관계를 추정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①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 ②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신뢰함으로써
- ③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 ④ 미시적 분석으로 거시 계량 모형의 상수를 추정함으로써

정답 : ③      비문학 / 독해      난이도 : 중상

**[해설]**

⑦에 들어갈 말은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경기 변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빈칸의 앞 문장에서 이들은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⑦의 다음 문장에서 ‘거시 계량 모형을 활용함에 따라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케인즈 학파는 정부가 ‘정책’을 사용해 ‘총수요를 관리’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답해설>**

① ‘보이지 않는 손’은 첫째 문단에 나오는 고전학파의 용어로,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케인즈 학파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셋째 문단에서 신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를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강조했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신뢰’ 한다는 것은 신고전학파의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거시 계량 모형은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 하는 도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셋째 문단에서 신고전학파는 ‘거시 계량 모형은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로 이 관계를 추정한다고 비판’ 하였다. 또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미시적 분석으로 거시 계량 모형의 상수를 추정’ 한다는 것은 케인즈 학파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 11. 다음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최일경이 동래 원찬 후 조용히 지낸 지 삼년이라. 매일 귀양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더니, 왜적이 동래로부터 팔도를 암습하거늘, 일경이 잠깐 국사를 생각하니 만분 위태한지라.

‘비록 왕명은 없으나 본국 신민이 되어 국사에 죽어도 어찌 한이 있으리오?’

하고 행장을 차려 경성으로 향하고 올라올새, 사방에 길이 막혀 통래치 못할지라. 해변으로 돌아 하루 이백 리씩 행하여 한양을 바라보니, 왜적이 성을 둘러싸고 전하는 피란하신지라. 슬픔을 참지 못하여 방성대곡하며 어디로 가신 줄을 몰라 생각하니,

‘의주로 가셨도다.’

하고 의주로 가니 과연 통곡성에 계시거늘, 들어가 복지 주왈,

“불충신 최일경은 종죄를 입사옵고 어명 없이 왔사오니, 신의 죄는 만사무식이로소이다.”

전하 일희일비하사 일경의 손을 잡고 용루 흘리시며 왈,

“과인이 불명하여 경을 천 리 밖에 보내고 이같이 대환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차후로 경을 잊지 못하였으나, 마침 부르지 못하고 오늘 경을 대하니 도리어 꿈같도다. 그러하니 경은 혐의치 말고 방적을 의논하라.”

일경이 주왈,

“이제 장졸이 없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속수무책이오나, 오늘 사시에 반가운 소식이 있을 듯하오나 어찌 믿사오리까. 평안도 용강 땅에 김응서라 하는 장수가 있사오니 바삐 부르시옵소서.”

즉시 전하 차사를 용강으로 보내고, 사시를 기다리더니, 남방으로 쫓아 천여 군병이 들어오거늘, 자세히 보니 빠르기 풍우 같아 순식간에 다다르니, 일원 대장이 일천팔백 근 투구를 쓰고 용인갑을 입고 호달마를 타고 칠 척 검을 들고 신장이 구 척이라.

—작자 미상, <임진록>

- ① 최일경은 왕명 없이 귀양지를 떠나 임금을 찾아갔다.
- ② 왕은 최일경을 멀리 유배 보냈던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
- ③ 최일경은 지원군이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 ④ 김응서가 임금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이끌고 달려 왔다.

정답 : ④      고전문학      난이도 : 중

**[해설]**

왕이 최일경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응서 장수를 부르기 위해 ‘차사를 용강으로’ 보냈다. 그 후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사시’에 천여 군병과 함께 일원 대장이 찾아왔으므로 이는 김응서가 아니라 다른 지원군임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최일경은 귀양지에서 ‘비록 왕명은 없으나 본국 신민이 되어 국사에 죽어도 어찌 한이 있으리오.’라고 생각한 뒤 ‘경성’으로 올라갔다. 또한 임금을 만나서 ‘불충신 최일경은 종죄를 입사옵고 어명 없이 왔사오니~’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그가 왕명 없이 귀양지를 이탈하여 임금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② 왕은 최일경이 통곡성으로 찾아오자 ‘과인이 불명하여 경을 천 리 밖에 보내고 이같이 대환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

하리오.’라고 하며 그를 멀리 유배 보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최일경은 장졸이 없음을 걱정하며, 임금에게 ‘오늘 사시에 반가운 소식이 있을 듯하오나 어찌 믿사오리까.’라고 하며 ‘평안도 용강 땅에 김응서라 하는 장수’를 부르기를 요청하였다. 이는 지원군이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정리]**

\* 작자 미상, <임진록>

•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한 역사소설이다. 작자 연대 미상의 고소설로 목판본, 한글본, 필사본 등 다양한 이본이 전한다. 임진왜란이 사실상 참담한 패배로 끝난 것이지만 당시 전란을 체험했던 민중들이나 그 의식을 계승한 후손들이 밖으로는 왜적의 침략을 자초했던 빠이픈 참회가 담겨 있다. 유성룡이 이여송 군을 청병해 올 때 압록강 기에서 재주 거리를 한다든가, 이여송이 조선 산천의 지맥을 끊으려다 태백산신의 질책을 받고 본국으로 도주한 다든가 하는 장면은 명나라 원군의 횡포에 대한 조선인의 의식과 배일사상은 물론 배명 사상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종전 후 이여송이 조선 산천의 맥을 끊으려다 노인의 인도로 태백산에 들어가 청의동자를 만나고 크게 질책 당하는 사건은 민중 속에 배명 의식의 뿌리가 깊음을 말해준다. 사명대사가 일본국에 가서 항복을 받는 설화, 김응서, 강홍립이 일본 정벌에 나서는 설화, 이여송 군의 원병에 따르는 설화, 관운장이 조선군을 도와주는 설화, 최일경의 꿈풀이의 총고 설화 등과 함께 민족적 분노와 반성의 역사의식을 표출해 내고 있다. 다양한 영웅들을 통해 민중들이 민족적 영웅의 출현을 길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후에 일어난 병자호란 이후의 의식과도 어져 군담소설의 출현을 낳았다.

• 주제: 임진왜란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과 승리

• 줄거리: 하루는 선조가 꿈을 꾸었는데, 우의정 최일경이 왜군이 쳐들어올 징조라고 해몽한다. 이에 선조는 태평성대에 맡도 안 되는 요사스러운 말을 하였다고 최일경을 동래로 귀양을 보낸다. 최일경은 동래에서 왜군의 침략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린다. 임진년 3월에 왜장 청정, 소서, 평수길 등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왜군이 침략할 것을 예측하고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은 수군을 지휘하여 싸우다 전사한다.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선조는 유성룡을 명나라에 보내 원군을 요청한다.

한편 김덕령은 의병을 일으켜 왜장 청정을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조현, 괴재우 등도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친다.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거절하자, ‘삼국지’의 관운장이 명나라 천자의 꿈에 나타나 조선에 군사를 파병하게 된다.

또 이여송의 꿈에도 관운장이 나타나 이여송이 청정의 목을 벨 수 있게 해 준다.

대장을 잃은 왜군은 대패하여 귀국하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김응서와 강홍립을 대장으로 삼아 왜국의 항복 문서를 받게 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3년 만에 왜군이 재침하려고 하자, 시명당이 일본으로 건너가 왜왕을 굴복시키고 항복 문서를 받아온다.

**• 특징**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화와 혼용하여 소설로 창작됨  
– 영웅적 인물들이 활약하는 삽화(插話)들을 연결하여 전개함  
– 민족적 자부심과 응전 의지 고취